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회의에서 신앙으로

(고전15:12-19, 54-58)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한 위대한 힘 앞에서 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 춘하추동,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흔히는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의 강단에서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찾아오는 고로 목석같은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녹이고 평소에 눈물 한번 없던 영웅호걸도 그 앞에서 후회와 분노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큰 마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생각조차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도 대결할 수 없는 그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황금과 권력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슬픔이 있지만 이별의 슬픔은 참으로 괴롭고 쓰린 것입니다. 이별에도 허다한 종류가 있지만 죽음의 이별만큼 슬픈 것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사망의 위력을 이긴 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은 인간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죽음 앞에서 있는 인생은 해 아래 있는 풀잎의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으며 죽음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망은 언제부터 인간에게 왔습니까? 사망은 죄 값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롬6:23)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명이 되었습니다.(민16:29, 욥1:21).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바울은 거듭 말씀합니다(고전 15:55-56). 쏘는 말은 독사가 독이나 이빨로 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 갖고 있는 독이나 이빨은 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죄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고, 사망은 이빨 빠진 독사처럼 무력해졌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시므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을 살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영(life-giving spirit)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사도바울이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며 2천년 기독교 핵심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많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생명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처음부터 이 진리를 의심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친히 목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였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하는 마음과 믿는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속엔 언제나 두 가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회의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니며 지식의 연마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는 심령의 질병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만 치유됩니다. 회의는 영혼의 불행한 상태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의에서 신앙의 자리로 대 전환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불신과 회의의 십자가 밑에 묻어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환희와 감사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나가서 전하고, 주 안에서 다시 산 우리는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과 죄의 권세에 잡혀있는 생명을 구원기 위해 그리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과 시대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 찬양예배 시 찬양으로 감사

하나님은 죄인의 피수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로마병정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인간을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은 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야겠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지휘: 이영조 집사)가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6회 “한마음 한가족축제” 열린다

오는 5월 5일(목) 밀알학교 강당에서

전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친목과 영육간의 건강을 도모하는 제6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교구위원회(위원장:김세재장로) 주관으로 오는 5월 5일 밀알학교(삼성병원 맞은 편 소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라는 표어 아래 청팀(1-7교구: 단장-임훈규장로)과 백팀(8-14교구: 단장-노문환장로)으로 나누어 성도들이 함께 참가하는 ‘화합의 경기’와 함께 대학, 청년부가 주축이 되어 인도하는 찬양축제와 재미있는 특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30일(수) 당회에 행사 기획 및 조직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하게 되는데, 식사는 예년과 같이 각 다락방 별로 준비하고 유니폼은 브랜드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의 상. 하의 유니폼을 제작하여 염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교회학교 등 제반 행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제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장을 완료하고 찬양과 응원전을 필두로 오전 10시에 경진회를 가진 후 대회장이신 이종운 목사님의 개회 선언으로 대회에 돌입하게 된다.

양팀의 응원단장 및 부단장은 4월 2일까지 준비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시상기준은 총 5,000점을 기준으로 하며 참가율(참가인원/팀 체적인원) 2,000점, 경기점수 2,000점, 응원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한마음 한가족 축제에 벌써부터 양팀의 응원단장 및 경기종목 선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그 열기가 벌써 고조되고 있다.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

4월 3일(주) 10시 40분 601호

4월 3일(주) 10시 40분 601호에서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를 갖는다. 온 성도가 모여서 수험생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의 중보자들은 한 해 동안 기도카드를 보고서 수험생을 위해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는 끊이지 않게 된다.

수험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온 성도가 묶여서 기도로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럴때 수험생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교회와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다 더 크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수험생이 앞으로 서울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다.

다음주 많은 성도들이 601호에서 비전을 품고 있는 학생과 결연을 맺기를 소원한다.

우리의 하나님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때문에 한반도가 떠들썩하다.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대한민국 영토로 알고 있던 독도 그 섬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선 가만있을 수가 없게 됐다. 외교관계나 어렵혀정이니, 그런 것을 따지기 앞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타 모든 면에서 독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한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신앙인이 살펴볼 것은 향후 대응책이다. 사실 조례안이 가결된 뒤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각 시민, 사회단체, 학계, 네티즌 등은 나라가 내놓은 반응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성토’ 뿐이다. 객관적인 언어로 이를 표현하면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일본의 은근한 노림수이기도 하다. 머리끝까지 치솟는 화를 풀고, 감정적인 후련함을

연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사태의 근본적 해결엔 별 도움은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이들 한국인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에 적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래부터 우상숭배에 익숙한 일본인들이 한일관계가 냉각된 요즘 한국 선교사들이 내미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대한기독교교회와 일본 복음선교회 등 일본선교를 위한 단체들은 우리 국민의 지나친 대응이 오히려 일본의 우익세력의 입지를 넓혀줄까 우려한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양식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일본 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이들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일본 선교의 기회”로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며칠 전엔 일본의 한 선교회 소속 기독교 지도자 8명이 한국을 방문해 ‘독도는 한국 땅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일본 사람으로서 참회한다’고 말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한 이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힘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많다. 일본 내 60만 명의 기독교 성도들과의 영적인 유대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선 너무나 당연한 독도영유권이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받기 위해선 훨씬 냉철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치밀하게 접근해오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견고히 갖춰야 할 시점이다.

김민철(편집부)



부활의 기쁨

우리는 부활

HAPPY



베들레헴 찬양대: 『서울교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유일한 남성 찬양대』 서울교회의 기둥 같은 찬양대로써 큰 소리와 웅장한 화음도 중요하겠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베들레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020운동: 우리나라의 전 지경을 넓혀 육·해·공군 군선교사들을 파송하자! 2020년에 우리민족의 75%가 하나님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자!



중등부·고등부: 서울교회의 꿈나무들! 세상 심사 기준의 합격자가 되기 전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사는 자가 먼저 되도록...



어린이와 함께



대학·청년부: 젊은 날들을 예수위해 불태우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장년부: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진리의 사도들이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초대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세상에게는 등대와 같이 길을 선으로 또한 올바른 세상 사명을 다 하고자 기도하



사랑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공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에바디부: 손끝으로 전하는 복음 “예수 다시 사셨네”를 땅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부: 흩어진 민족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 통일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나립니다.

의 증인들!

E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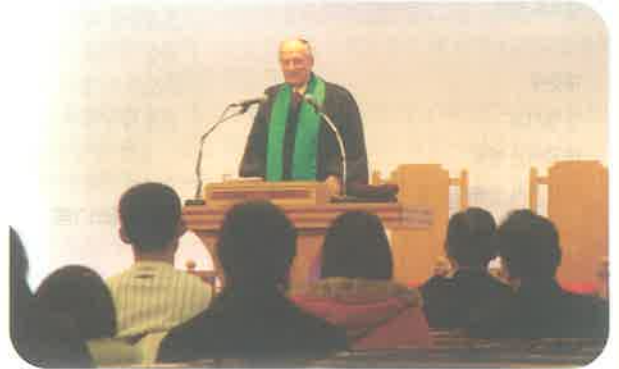
가족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각 부 (유년부에서 장년부)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1부 가족예배



70인 전도대: 한 생명이 천보다 귀하디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명령을 땅 끝 까지 전하는 70인 전도대 화이팅!!!!



영어예배부: 지구촌 시대를 맞아 많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활하셨네?
나누는 서울교회로 여러분을
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이웃
밝히고, 민족을 구원할 구원
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고 있습니다.



다락방: 무익한 자를 유용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락방 식구들의 평가절 상을 위해 서로 섬기며 노력하는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유년부: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살아났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화답하는 어린이



모으겠습니다. 복음으로 남북
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따르



유치부: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시간 "호산나 호산나" 나귀타고 오신 예수님께 종려나무 흔들어 기뻐하는 어린이들



초등부: 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노 라고 기도의 훈련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부활절의시

또 하나의 하늘

신동기 권사(12교구)

이렇게
서둘러
해는 떨어지고
알몸 매달은
갈보리 언덕

대못에
살 찢기고
뼈 들이난 맨발
모진 가시 살속에 묻고
붉은 피 쏟아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백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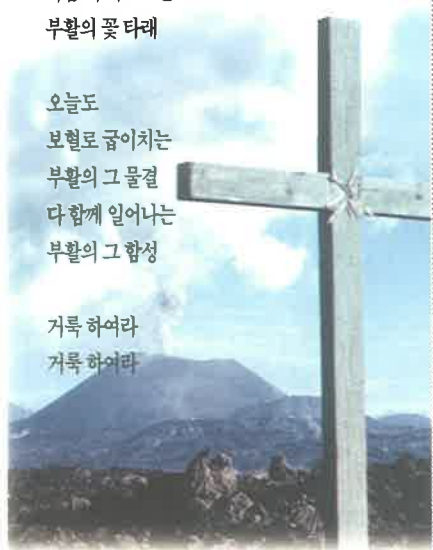
날라 오는 긴 창살
옆구리에 꽃이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떨구는 소리!

다 - 이루었다
그 피로
푸른 휘장 찢으며
또 하나의 하늘
영광의 부활로 출렁인다

피어라!
피어나라!
부서지고 깨어져
갈릴리 골짜기마다
아름져 차오르는
부활의 꽃 타래

오늘도
보혈로 굶어치는
부활의 그 물결
다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그 합성

거룩 하여라
거룩 하여라



부활절 찬양예배 칸타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침표를 찍으셨네

김광신 장로(할렐루야 찬양대장)



우리의 고향은 에덴동산이었다. 그곳이 처음에는 깨끗했고 아름다웠고 신비로웠다. 그러나 오래 있어야 했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쫓겨난 자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가시와 영장류의 삶이 시작되었고 죄와 싸우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고생과 수고의 떡을 먹어야 사는 불쌍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비참한 경우가 또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고난과 비난과 아픔과 죽음을 담당케 하심으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셨다.

오늘 저녁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는 부활절 칸타타는

또 한 번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우리 몸에 새기는 음악으로 엮어서 선물하기로 하였다.

이영조 작곡의 「가시관을 쓰셨을 때」를 통하여 골고다 형장의 장면을 노래하는 것을 시작으로 헨델의 곡과 이어지는 베이스 서창과 독창 그리고 이영조 작곡의 합창 「부활하셨다」를 통하여 이른 새벽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동굴 앞의 모습을 노래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환희의 찬송으로 부활을 크게 외치게 된다.

그리하여 죄와 허물과 아픔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멸시 천대 고난을 노래하고 마침내 사탄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높이 찬양할 것이다.

이로서 모든 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마침표를 찍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큰소리로 합창할 것이다.

부활의 기쁨

예수 다시 사셨네!



박소연(유년부)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박철훈 장로님)께서도 다시 살아나신다지요. 예수님 사랑해요.

박지원(초등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 친구들에게 줄 달걀을 예쁘게 꾸미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홍지영(중등부)

부활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제게는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이종원(고등부)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심령에 가득 가득하기를...

이종석(사랑부)

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 경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에바디부)

물질이 있고 건강하며 명예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양혜선(대학부)

내가 울 때 더 큰 슬픔으로 울어주시던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죽기까지 날 위해 기도하시던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지영(청년부)

고난 주간 내내 새벽기도를 통해 드렸던 기도 제목은 제 안에 시기와 열등감, 분노와 미움을 버리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만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님, 감사합니다.

이영자 권사(장년부)

인간이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둘 수 없듯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김훈 집사(Kim Hoon · 영어예배부)

I thank Jesus who proved that the dreadful physical death is the glorious first step into the eternal life with God.

오형철 집사(스데반회)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약속 해 주심으로 새 소망과 권능을, 그리고 새 기쁨을 주셨으니 이 부활의 동참자가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매순 권사(권사회)

무덤을 깨치고 사흘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부활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

이신명

(청년부 · 육군사관학교 영어교수)

3월 19일 화창한 토요일 오후,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교회엔 육사 생도들과 교수, 기간 장교들이 육사세례식을 위해 모여들었다.

이번 세례식의 수세자는 1학년 생도를 중심으로, 모두 사관학교 입교 이후 기본군사훈련 과정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기본군사훈련은 생도 시절 4년을 통틀어 가장 엄하고 험난한 훈련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에게 세례식의 의미가 더 각별했다.

현재 육사교회에 나오는 생도는 전체 생도 수에 3분의 1 정도이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후배들은 그동안 훈련과정에서 엄하기만 했던 선배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한가죽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날 세례식이 끝난 뒤 서울교회에서는 생도들과 군의 영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결의패를 육사교회측에 전달했고, 육사교회도 군 안팎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더욱 서울교회와의 협력을 강



화하지는 결의패를 서울교회에 전했다.

육사 생도들은 4년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임관한 뒤 전국 각지의 병영으로 배치된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군인들은 이들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이들에게 영적인 투자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이 생도시절 동안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가득차고 제대 이후에도 하늘나라에 많은 열매를 쌓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실질히 필요하다.

성도들의 기도마다 이들의 이름이 항상 불려지고 기억 되길 소망해본다.

편지 왔어요

미약한 종으로...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중 평안하시오며 섬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곳의 운암제일교회(전북 임실군)는 신중 벽지에 위치한 장년 2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로 서울교회를 통하여 보조를 받아왔던 교회입니다. 그 간의 물질 협력과 기도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 2005년부터는 총회 방침으로 지정 노회를 통하여 협조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교회와는 자연히 협력관계가 중단된다 할 지라도 서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성도님들의 특별하신 후원으로 지급을 받으며 은혜를 받게 해 주시니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최소한 세 번 이상씩은 꼭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 지적 향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운 목사님을 존경하며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적인 학자의 모습이며 한국 강단에 모범적인 목회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는 항상 기다려지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을 적 마다 이 곳의 부족한 종은 농촌의 미약한 종으로 살면서 자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이며 서울교회의 후원의 덕으로 생각하며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5.3.14 운암제일교회 목사 김상중 배상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이영주 집사(5교구)



서울교회의 스카이 라운지라 불리는 8층 만나홀, 성도들의 교제의 장이며 교회의 1년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나홀을 섬긴지 올해로 11년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

는새 11년이 흘렀습니다. 논현동 예배당에서 잠깐, 그리고 여름이면 찜질방 부럽지 않았던 옥탑 주방의 반포동 예배당에서 그리고 호텔 주방이 부럽지 않은 지금의 만나홀. 이렇게 주방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서울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만나홀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주일이면 남자 집사님들께서 성금 주방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이며 밥을 나르며,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주일 저녁에는 스테반회 안수 집사님들이 식탁을 정리하고 바닥까지 말끔히 닦아주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일에 먹을 국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 묵묵히 일하시

는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틈틈이 채워지는 봉사의 손길, 손길들... 이처럼 만나홀은 많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로 가꾸어지는 곳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지난 1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이곳에서 매일 매일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했지만 문득 문득 자기 안일을 찾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인내하고 관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관용은 온데 간 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슬그머니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시는 권사님, 피곤하면 안 된다며 비타민을 내미시는 집사님... 제가 갇아야 할 사랑의 빛은 자꾸만 늘어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 아마도 만나홀은 부서별로 달걀을 삶느라고 또 한바탕 부산스럽겠지만 활기찬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고치시고 제 마음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성도여러분께 사랑의 빛을 갠기 원합니다.

동정

- 이사: 이명홍 한령 집사(12교구) 용인시 죽전동 대지마을 건영캐슬빌 706-1702 T. 031-309-5352
- 서영세 집사 서정애 집사(6교구) 인천시 서구 불로동 월드아파트
- 연주회: 류충기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3월22일(화) 연세대학교에서 '독일 가곡과의 만남' 음악회를 가졌다.
- 광직성 성도(중등부) 3월 26일(토) 한전아트센터 우크라이나 교향악단과 플룻 협연하였다.
- 미술 전시회: 김예환 권사(12교구) 경기 화우회 회화전시회 3/22(화)~28(일) 수원미술전시관
- 주간 식당봉사: 베드로남선교회(3월27일) 바울남선교회(4월3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환란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4. 독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니 빼앗기지 않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미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새 생기 운동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